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제5강 : 함께 가는 진리의 길-설법제일 부루나

강사: 자광 스님 (김용사 회주)

공동주최 : 광주 동구불교협의회- 현대불교
일시 : 2005.11.2 / 장소 : 광주 KT정보센터



몸 던져 수행하고, 부처님 법 펴라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부처님 제자는 설법제일 부루나(Puran) 존자입니다.

경전에는 '부루나 미다라니자(富樓那彌陀羅尼者)'로 불립니다. 부루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가득하다'는 뜻이며, 미다라니는 어머니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부루나와 어머니 미다라니의 아들을 뜻합니다.

부루나 미다라니자를 의역하면 원력이 충만한 사람(滿願子), 축복을 충만케 해주는 사람(滿願子),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滿慈子)이라고 합니다.

부루나는 가비라 성에서 가까운 드나바투에서 부처님과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바라문으로 큰 부자였으며 가비라 성주 정반왕의 국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하여 4배다리(그, 사마, 아지르, 아타르다)와 5명(성명, 인명, 내명, 의방명, 공교명)에 통달하고 우주보다도 더 영원한 존재를 몸과 마음의 영감으로 체득했습니다.

그 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왕사성 죽림정사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출가했습니다.

가진 것 버리는 것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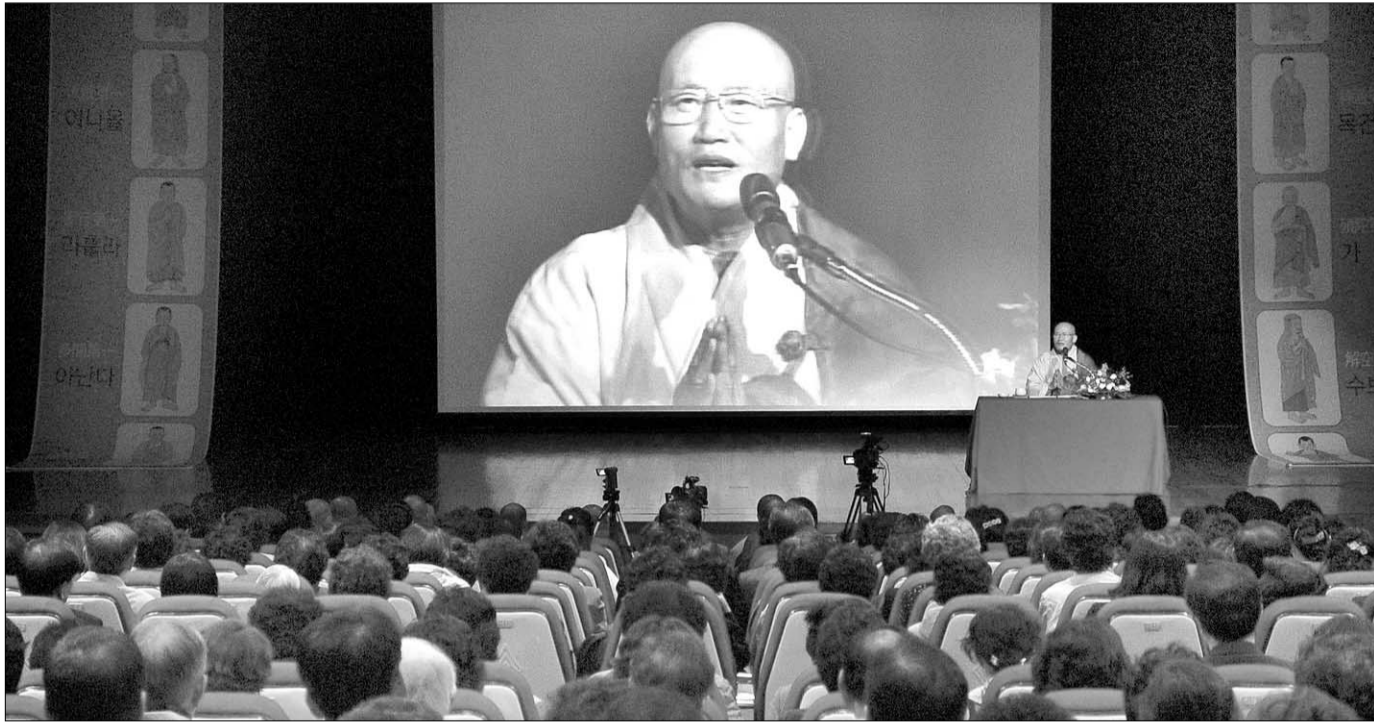
부루나 존자는 부처님에게 사성제 가르침을 받고 아라한과를 얻으셨습니다. 사성제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멸盡'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한 생각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나 시간과 공간이 한 시점에서 만날 때 지금까지 맺어온 모든 인연은 없어집니다.

한 순간에 도를 깨쳤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죠.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옛 스님들은 '한 생각 잘 가지면 만년동안 잘 산다'고 하셨습니다. 깨치는 것도 순간입니다.

세상은 고통입니다. 원인과 조건이 모아져서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것을 없애야 합니다. 없애려면 팔정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성제에서 고, 집, 도를 그냥 없애버리세요. 머뭇거리지 말고 자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부루나 존자는 이렇게 '없애는' 수행으로 아라한과를 증득한 것입니다.



자광 스님은, 습소리로 죽인채 경청하는 불자들에게 불교의 생활화·대중화·현대화를 통해 나와 이웃이 모두 바르게 사는 길을 찾을 것을 역설했다.

부루나 존자는 설법제일에 앞서 부처님 법문을 가장 잘 들었습니다. 부루나 존자는 사리불과의 담론에서 일곱 수레의 비유를 통하여 부처님 법문을 듣는 자신의 자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은 계율을 익히기 위해서도 아니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며, 의심을 떠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전체를 위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일대사 인연으로 전생부터 부처님과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루나 존자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을 없애는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한량없는 구원갑래(久遠劫來)로 함께 살았던 인연이 있어 오늘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나고 보니 대중가요 가사가 생각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그렇습니다. 부처님과 부루나 존자와의 만남이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나 모두가 '광장한' 만남입니다.

부루나 존자가 '얻은 것을 없애는 수행을 했다'고 해서 행복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행복, 그 까짓 것이 뭐 필요하냐'고요? 부처님은 행복에 관해 아주 간결

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일 아함경>에서 "행복을 두려워하지 말라. 행복은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니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라. 행복은 불에 타지 않으며, 물에도 젖지 않으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땅에서도 썩지 않으며, 왕이나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으며, 사나운 벼락에도 부서지지 않으며, 창고에 두고 지키지 않아도 썩지 않으며,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 인연나 좋은 반력자가 되어 어려움을 건너가게 하는 뗏목이 되고, 소원성취를 하는 자원이 되며 유일한 후세 내생의 자원이 되느니라. 늘 부처님을 참회하고 보시하며 맺힌 업을 풀어나가고, 풀여놓은 인연을 더욱 좋은 인연으로 잘 바꾸어 가라. 용기의 근원은 정성 들인 마음에 있느니라. 정의 기초를 둔 용기는 죽음을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안심입명 하느니라. 일본일초의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며 꿈은 여기 지금 현재의 일에서 찾으라" 하였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루나 존자는 "행복하고 싶으면, 병이 낫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사랑받는 사람 만나고 싶으면 부처님의 가

르침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부처님을 믿고 정진하면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기복신앙이 잘못이라는 분노 있는데 복을 기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음을 뒤을 수가 있습니다.

부루나 존자는 어느곳에서나, 누구에게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제일'이라는 인가를 받습니다.

"저는 오랜 겁 전부터 변제가 결핍이 없어 고(苦)와 공(空)을 말하고 실상을 깊이 통달하였으며 항상 여래의 비밀한 법문을 대중 가운데서 미묘하게 열어 보이기를 두려움 없이 하였나이다. 세존께서 저에게 큰 변제가 있는 것을 아시고 음성법륜으로써 저를 가르쳐 발양(發揚)케 하였사오니 제가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을 도와 법륜을 굴리며 사자후로 인하여 아라한을 이루니 세존께서 저를 인가하시라 설법제일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저의 생각에는 법으로 마구니와 원수를 항복 받고 모든 누를 소멸시킴이 제일이 되겠나이다." <능엄경 육식원통>

우리는 보통 참선과 염불, 진언 이런 기도만을 불교의 가르침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엄경>에 보면 25가지 원통방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육근과 육진과 육식과 지수화풍 등 25가지 원통을 성취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스물다섯 원통장 가운데 15번째 부루나 존자가 법음으로써 마구니와 원통을 풀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법문을 듣고 자신의 마음에 대조해 보고 내 마음이 잘못 되었구나 하면 빨리 생각을 바꾸는 공부를 하면 누구나 부루나 존자가 됩니다. 설법 제일 불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부처님은 부루나 존자와 오백제자에게 수기를 내립시다.

<묘법연화경> 제8장 수기품에서 부처님은 '정법을 해석하여 설법하는 부루나 존자는 부처가 될 것이다'는 수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불법을 호칭하고 불법을 알리어 모두에게 이롭게 하여 부루나 존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부루나가 될 때 가정과 이웃 나아가서 이 지구는 불국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루나 존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불자가 해야 할 포교는 무엇일까요?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현대화'입니다.

'불교 현대화' 요건은 죄업 참회

불교도 현대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불교를 현대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이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를 하고나면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이 모두 시원해집니다. 태풍은 단박에 큰 바람이 되어 불지 않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28도가 되면 슬슬 바람이 일어나서 태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법회에 함께한 인연공덕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자비와 홍의, 순결, 진실, 화합, 사랑, 선행, 보시, 합리, 지혜, 효행, 충성심이 바람일 듯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한 바람이 일어날 때 행복합니다.

이제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가 수로나국 포교를 떠나기에 앞서 부처님과 역사적인 대화를 나눕시다.

부처님은 수로나국 사람들이 의심 많고 난폭해 부루나 존자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로나국 사람들의 성품이 거칠어서 모욕을 주면 어찌 하겠는가?"

"저를 욕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저를 때리거나 돌을 던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때리거나 돌을 던진다면 쟁쟁는가?"

"그래도 인정 많은 사람들이거나 칼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칼을 쓰면 어찌 하겠는가?" "그들은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이니 저를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소로써 포교하자

"만약 그대를 죽인다면 어찌 하겠는가?" "부처님,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상에는 살아가면서 생기는 온갖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덧없는 육신을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원통을 그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 같게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죽는다면 그보다 더한 것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법망구(爲法忘身)'입니다. 법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부루나 존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가르침은 바로 '몸을 던져 부처님 법을 펴는 것'입니다.

질의응답

문: 불자는 타종교인에 비해 포교적이지 못합니다. 부루나 존자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불교를 포교하는 이는 뜻이 다. 역사적으로 꽃을 든 최초의 성인입니다. 꽃을 든 가섭존자가 이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려면 절에 가서 법당 문고리에 실을 자기 문을 열면 이가 빠지게 했습니까? 아이는 법당의 부처님을 바라보며 울음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이것이 안미소입니다. 가섭 존자는 가장 잘 부처님 법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말이 미소입니다. 웃으면

이나 포교를 받는 이 모두 문명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웃으며 꽃을 공양하세요. 계에 사는 사람들은 꽃 공양을 할 수 없습니다. 불교와 인연을 맺지 않은 이에게 꽃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정리·사진=이민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갯바위)

주 지 정 목
사부대중 일동